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몰입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

임선애¹, 박민정^{2*}

¹군산의료원, ²군산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in General Hospital Nurses

Sun-Ae Im¹, Min-Jeong Park^{2*}

¹Gunsan Medical Center

²Dept. of Nursi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몰입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는 2017년 8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종합병원 간호사 19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하였고, SPSS WIN Version 22.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은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몰입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영향요인은 환자안전문화인식, 조직몰입 및 환자안전교육 경험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3.3%였다. 따라서,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안전문화인식, 조직몰입 및 환자안전교육을 고려하여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종합병원, 간호사, 환자안전관리활동, 환자안전문화인식, 조직몰입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 of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in general hospital nurs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91 subjects from August 2 to August 16, 2017 using a structured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SPSS WIN Version 22.0. The results showed that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lso, the influencing factors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were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atient safety education experience. These factors explained 33.3% of variance.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mong general hospital nurs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n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considering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atient safety education experience.

Key Words : Hospital, Nurse,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Kunsan National University of Kunsan.

*Corresponding Author : Min-Jeong Park(itsmedal@naver.com)

Received April 2, 2018

Revised May 14, 2018

Accepted June 20, 2018

Published June 28, 2018

1. 서론

환자안전사고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의료환경 속에서 원활하지 못한 의료인간의 의사소통, 환자중증도 및 취약성 등의 위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과정에서 의도하지 않는 위해에 노출되어 발생하게 된다[1]. 이러한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에게 신체적으로 손상을 일으키고 재원기간을 연장시켜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신뢰감 약화 및 의료 질 저하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환자안전은 병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첫 번째 원칙이며,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2].

환자안전 사고 발생은 2011년 기준 연간 입원 환자 597만 7,578명 중 평균 9.2%가 의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사건을 경험하고, 이 중 7.4%인 40,695명이 사망한 것으로 분석되는데[3], 여기에서 24%만이 피할 수 없는 사고였고, 70%는 예방이 가능하고, 6%는 잠재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환자안전관리와 관련된 의료분쟁은 낙상사고가 43.9%로 가장 많았고, 장비 및 시설물 관리 관련 사고가 42.1%, 약품 관리 관련 사고가 5.2% 순으로 나타났다[5]. 이러한 환자안전 사고는 제도 및 정책적인 대책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되며[3],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의료기관의 구성원들이 환자안전을 가장 중요시하고 높은 수준의 환자안전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6]. 환자안전문화는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환자안전을 위한 시스템적 체계 및 정책과 절차,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리더십, 더불어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팀워크 등이 강조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환자안전문화가 구축되면 환자안전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오류와 사고가 감소되어 각종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7].

환자안전문화는 단지 안전관리자만이 아닌 간호사, 의사, 병원 경영자 등 모든 직원들이 함께 공유하며 실천해야만 건전한 조직문화로서의 환자안전문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8]. 특히 간호사는 24시간 동안 환자 옆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환자안전문화는 안전사고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간호업무는 낙상, 투약사고, 감염, 시설물관련 사고 등 환자안전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9], 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

사고 중 부적절한 간호활동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10]. 그럼에도 일부 간호사들은 환자안전을 낙상에 의한 부상, 자살과 같은 안전사고나 재해 등 매우 제한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11]. 또한 간호사들은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나 그때마다 별 문제없이 해결되므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문제의식과 경각심이 낮은 상황이다[11]. 그러므로 간호사들의 환자안전문화인식의 정착을 위해 환자안전과 관련된 간호상황을 민감하게 인식하여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12].

조직몰입은 개인이 조직의 목표를 내재화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13]. 조직몰입이 높은 간호사일수록 조직구성원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간호동기를 부여하고, 간호업무수행에 대한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조직의 효율적 업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하여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또한 간호사들의 조직몰입을 환자에 대한 몰입과 동일한 측면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조직몰입이 환자의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데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한다[15]. 따라서 조직몰입은 간호업무 성과가 높아지는 동시에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간호업무 수행에 긍정적이며, 환자들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조직 내 충성도를 높여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잘 수행하게 됨으로써,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16].

환자안전관리활동은 간호사가 환자에게 사고 혹은 위해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등 환자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간호활동을 의미한다[17].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고, 병원들은 더 나은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위해 표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료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18]. 더욱이 의료기관 평가가 2004년부터 시행되면서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관리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 전환되면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평가 문항이 증가됨에 따라 환자안전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의 중대한 관심사가 되었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국제 의료기관 평가위원회(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의 인증을 획득하거나 획득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하

고 있는 등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6].

간호사는 간호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서 환자안전관리활동을 통해 간호현장의 위험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환자안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19]. 그러므로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같이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몰입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환자안전관리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연구[11,17,19]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안전통제감[22], 소진[23],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인식과 안전분위기[24],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인식과 간호업무성과[26]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Hwang과 Lee[26]는 전문직 자율성, 조직몰입, 환자안전문화인식이 환자안전 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조직몰입이 환자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데 필수전제 조건임[13]에도 불구하고 조직몰입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자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환자실이 없는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간호사를 연구대상으로 함으로써 연구의 결과를 중환자실이 있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에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이 있는 35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몰입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몰입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북지역에 소재한 350병상 이상

종합병원 3곳에서 직접적으로 간호를 수행하고 있는 임상경력 12개월 이상이고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환자안전문화인식 도구에서 지난 12개월 동안의 사고보고 횟수에 관한 질문을 근거로 하였으며 임상경력 12개월 미만의 경력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자 표본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독립변수 2개(환자안전문화인식, 조직몰입)와 9개의 일반변수를 포함하여, 유의수준 .05, 중간효과크기 .15, 검정력 .95를 기준으로 하여 표본수를 구한 결과 최소 178명으로 산출되었으며, 10%의 탈락률 고려하여 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96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불완전한 5부를 제외하고 총 191부(97.4%)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2.3 연구도구

1)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문화인식은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27]에서 개발되고 별도의 허가 없이 공개된 설문지를 Kim 등[17]이 번안한 도구로 이메일을 이용해 번안한 저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도구는 모두 6개의 하위영역으로, 사고보고의 빈도 4문항, 의사소통과 절차 6문항, 환자의 안전도 1문항, 직속상관/관리자의 태도 4문항, 병동근무환경 18문항, 병원환경 안전도 11문항, 문항의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이며, 부정문항 1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고, 평점이 높을수록 환자안전문화인식의 정도가 긍정적이며 보고가 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 는 .77이었고, Kim 등[1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74이었다.

2)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Mowday 등[28]이 개발한 도구를 Kim[29]이 번안하고 Lee[39]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이메일을 이용해 수정·보완한 저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도구는 모두 3개의 하위영역으로, 애착 6문항, 근속 3문항, 동일시 6문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이며, 부정문항 6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

하였고, 평점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 는 .89, Kim[2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56, Lee[3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2이었다.

3) 환자안전관리활동

환자안전관리활동은 Lee[30]이 개발한 도구로 Lee[9]이 수정·보완한 것으로 이메일을 이용해 원저자와 수정·보완한 저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도구는 모두 9개의 하위영역으로, 낙상예방 3문항, 욕창예방 3문항, 감염 예방 3문항, 환자확인 7문항, 응급상황 7문항, 구두처방 3문항, 수술/시술 4문항, 투약 7문항, 안전한 환경 3문항의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이며, 평점이 높을수록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간호사의 지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 는 .95, Lee[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2,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4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10401117-201708-HR-028-02)을 받은 후에 자료수집과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7년 8월 2일부터 16일까지 총 15일간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간호부서를 방문하여 간호부서장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허락을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익명성, 비밀보장,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 참여 도중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이었고, 설문을 완성한 대상자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개별봉투에 담아 밀봉하여 회수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이름은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ID번호를 부여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sio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종합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환자안전문화인식, 조직몰입, 환자안전관리활

동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활동은 독립표본 t-test와 ANOVA를 이용하고, 사후분석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몰입 및 환자안전관리활동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고,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0.32세이었고, 26에서 30세가

Table 1. Differences i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N=191)

Variable	Categories	n(%)	Mean±SD	F/t	p
Age(Yr)			30.32±6.11		
	21-25	49(25.7)	3.87±0.39 ^a	6.25	<.001
	26-30	66(34.5)	3.90±0.38 ^b		
	31-35	38(19.9)	4.04±0.49 ^c		
	36-40	24(12.6)	4.14±0.41		
	≥40 ^e	14(7.3)	4.41±0.34 ^{abc}		
Sex	Male	11(5.8)	4.00±0.44	0.86	.932
	Female	180(94.2)	3.99±0.43		
Spouse	Have	125(65.4)	3.92±0.42	-3.20	.002
	Not have	66(34.6)	4.13±0.42		
Education	Bachelor	69(36.1)	4.05±0.45	1.50	.135
	≥Master	122(63.9)	3.96±0.42		
Nursing unit	GW	108(56.5)	4.02±0.42	2.084	.085
	OP	24(12.6)	4.15±0.51		
	ICU	17(8.9)	3.87±0.33		
	ER	20(10.5)	3.83±0.48		
	OR	22(11.5)	3.93±0.39		
Shift work	Yes	129(67.5)	3.09±0.41	-2.07	.040
	No	62(32.5)	4.08±0.46		
Clinical career of current unit(Yr)			3.06±2.83		
	<1	33(17.3)	4.00±0.40	0.40	.809
	1-2	85(44.5)	3.99±0.48		
	3-4	37(19.4)	3.94±0.38		
	5-9	26(13.6)	4.08±0.43		
	≥10	10(5.2)	3.96±0.34		
Total clinical career(Yr)			7.80±6.16		
	1-2	59(29.6)	3.88±0.42 ^a	6.11	.001
	3-4	18(9.0)	3.87±0.32 ^b		
	5-9	57(28.6)	3.94±0.37		
	≥10	65(32.6)	4.17±0.47 ^{ab}		
PSEE	Yes	9(4.7)	3.71±0.35	-2.01	.046
	No	182(95.3)	4.00±0.43		

^{a-e}: Scheffé test (The mean of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
 GW: General ward, OP: Outpatient, ICU: Intensive care unit, ER: Emergency room, OR: Operarion room, PSEE: Patient safety education experience

34.5%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94.2%가 여성이었고, 결혼 상태는 65.4%가 미혼이었으며, 최종학력은 63.9%가 학사 이상이었다. 근무부서는 56.5%가 병동근무자였고, 근무형태는 교대근무자가 67.5%이었다. 현 부서 경력은 평균 3.06년이었으며, 1년에서 2년 이하가 44.5%로 가장 많았다. 임상 총 경력은 평균 7.80년이었으며, 32.6%가 10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교육 경험은 95.3%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참고).

3.2 환자안전문화인식, 조직몰입 및 환자안전관리 활동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조직몰입 및 환자안전관리활동은 5점 만점에 평균 각각 3.23점, 3.34점 및 3.99점이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환자안전문화인식에서 사고 보고의 빈도에 대한 인식이 3.53점으로 가장 높았고, 병원환경 안전도는 2.93점으로 가장 낮았다. 조직몰입에서 애착이 3.54점으로 가장 높았고, 근속이 3.12점으로 가장 낮았다. 환자안전관리활동에서 낙상예방이 4.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안전한 환경이 3.48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2 참고).

Table 2.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N=191)

Variables	M±SD	Min	Max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3.23±0.22	2.57	3.95
Frequency of events reported	3.53±0.66	1.00	5.00
Communication	3.51±0.38	2.17	4.67
Patient safety level	3.51±0.62	2.00	5.00
Hospital work environment	3.35±0.31	2.61	4.44
Supervisor/Manager attitude	3.10±0.47	2.00	4.25
Hospital environment	2.93±0.30	2.27	4.00
Organizational Commitment	3.34±0.52	1.13	4.93
Attachment	3.54±0.58	1.33	5.00
Identification	3.25±0.55	1.00	5.00
Continuance	3.12±0.66	1.00	5.00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3.99±0.43	3.00	5.00
Fall prevention	4.34±0.59	2.33	5.00
Bedsore prevention	4.26±0.69	2.00	5.00
Infection Prevention	4.22±0.51	3.00	5.00
Patient identification	4.17±0.49	2.86	5.00
Crisis Management	4.06±0.58	2.57	5.00
Oral prescription	4.02±0.62	2.33	5.00
Surgical /procedures	3.98±0.60	2.25	5.00
Medication nursing	3.59±0.53	2.43	5.00
Safety environment	3.48±0.71	1.33	5.0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간호활동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활동에서는 연령 ($F=6.25, p < .001$), 결혼상태($t=-3.20, p=.002$), 근무형태($t=-2.07, p=.040$), 임상 총 경력($F=6.11, p=.001$), 환자안전교육 경험($t=-2.01, p=.04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혼, 근무형태는 통상근무에서, 환자안전교육 경험은 있음에서 환자안전관리활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분석 결과 연령에서는 40세 이상, 임상 총 경력은 10년 이상에서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간호사의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고).

3.4 환자안전문화인식, 조직몰입 및 환자안전관리 활동 간의 상관관계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관리활동($r=.46, p < .001$)과 조직몰입과 환자안전관리활동($r=.41, p < .001$) 및 조직몰입과 환자안전문화인식($r=.42,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고).

Table 3. Correlations among Culture Percep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N=191)

	1	2	3
	r(p)		
1.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1		
2. Organizational Commitment	.42(<.001)	1	
3.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46(<.001)	.41(<.001)	1

3.6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환자안전관리활동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변수와 상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몰입을 다중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결혼상태, 근무형태, 환자안전교육 경험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0.10 이상(0.24-0.97)이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모두 10보다 작았고(1.03-4.26),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가 0.80 미만(0.04-0.1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 Watson 지수가 1.73으로 기준치인 2.0에 근접하여 오차항 간의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4.56, p<.001$). 또한,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결과 선형성, 정규분포성 및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하였다.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자안전문화인식($\beta=.35, p<.001$), 조직몰입($\beta=.21, p=.003$), 환자안전교육 경험($\beta=.13, p=.034$)의 순이었으며,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33.3%였다(Table 4 참고).

Table 4. The Affecting Factors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N=191)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0.79	0.38		2.05	.041
Age(Yr)	0.08	0.04	.22	1.80	.074
Spouse	0.01	0.08	.01	0.10	.919
Shift work	0.10	0.06	.11	1.81	.072
Total clinical career(Yr)	0.00	0.04	.00	0.04	.971
Patient safety education experience	0.16	0.07	.13	2.14	.034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0.69	0.13	.35	5.23	<.001
Organizational Commitment	0.17	0.06	.21	3.00	.003
R ²	.358				
Adj.R ²	.333				
F(p)	F=14.56(<.001)				

Spouse(0=Not have), Shift work(0=Yes), Patient safety education experience(0=No).

4. 논의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인식, 조직몰입 및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상자의 업무를 개선하고 환자안전관리활동 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3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i와 Jeon[31]의 연구에서 3.17 점,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9]의 연구에서 3.41점과 Cho, Heo와 Moon[32]의 연구에서 3.60으로 나타났다,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Lee[33]의 연구에서 3.50점, Hwang과 Lee[26]의 연구에서 3.54점으로 나타나 모두 보통 이상으로 병원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도입으로 환자안전에 대해 강조하고 이를 평가 지표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에서 큰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환자안전문화인식을 높이기 위해 병원 경영진은 물론 병원 전 직원의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구성원들의 환자안전문화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과 반복교육이 필요하다.

하위영역별 환자안전문화인식 결과를 살펴보면, 사고 보고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병원환경 안전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한 Lee[9]의 연구,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Kim과 Lee[33]의 연구에서 사고보고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거치면서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안전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한 결과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환자안전문화인식 개선과 함께 두려움 없이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진의 태도와 리더십이 무엇보다 강조된다[34]. 더불어 의사소통은 조직몰입에 긍정요인이므로[35] 병원 구성원 간에 환자안전과 관련된 의사소통을 제한하거나 실수를 비난하거나 개인에게만 사고의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반면, 환자안전문화인식에서 가장 낮게 지각된 하위영역은 병원환경 안전도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 Heo와 Moon[32]의 연구,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wang과 Lee[26], Moon과 Lee[36]의 연구에서도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병원 경영진과 구성원들이 병원환경 안전도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여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

이기 위해 병원 경영진과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조직몰입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4점의 결과를 보였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등[37]의 연구에서 4.41점,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38]의 연구에서 3.2점,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Hwang과 Lee[26]의 연구에서 4.24점, 전국 의료기관의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39]의 연구에서 3.20점으로 모두 보통 이상이며 병원의 규모나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몰입이 병원의 양적인 부분이 아닌 내부 구성원 간의 인간적 협력관계에서의 차이에 의해 비롯된 결과로 사료된다. 즉, 조직몰입은 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애착과 조직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40] 부서 및 동료 간에 인간적 유대감과 신뢰감을 높이고 개방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하위영역별 조직몰입 결과를 살펴보면, 조직에 대한 애착이 가장 높고, 동일시, 근속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39]의 연구에서 조직에 대한 애착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전국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ang 등[41]의 연구에서는 근속, 애착, 동일시 순으로 나타나, 근속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병원 내부의 신뢰감이나 조직문화의 합리성 등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업무환경은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긍정요인으로 작용하며[42] 이를 위해 간호업무 환경 개선 및 조직적인 병원문화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환자안전관리활동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99점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ang 등[23]의 연구와 Hwang과 Lee[26]의 연구에서 3.81점과 3.51점으로 모두 보통 이상으로 유사하였지만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와 Kim[1]의 연구 2.11점와는 차이가 컸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기관 평가가 시행되면서 병원에서 환자안전과 함께 의료의 질 관리 항목이 추가되어 소비자들의 요구와 각종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환자안전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직

원들에게 교육하였지만 규모가 큰 병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환자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을 정비하고 반복적으로 교육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준비함에 있어 기존의 규정과 지침을 정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직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하위영역별 환자안전관리활동 결과를 살펴보면, 낙상예방이 가장 높았고, 욕창예방, 감염예방, 환자확인, 응급상황 순이었으며, 안전한 환경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와 Gang[43]의 연구,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9]의 연구에서도 낙상예방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했다. 이러한 결과는 낙상사정도구가 입원환자들의 안전을 위한 주요 간호사정지표 중 하나이며, 각종 평가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으로 낙상위험도에 대한 간호사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44]에 따르면 병원 입원 기간 동안 3~20%가 낙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낙상은 입원환자에게 흔히 발생 될 수 있는 문제로 낙상과 관련된 환경적 관리와 간호사의 적극적인 중재활동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안전한 환경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와 Gang[43]의 연구,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한 Lee[9]과 Song 등[21]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에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준비함에 있어서 안전과 관련된 병원환경 시스템 구축이 주된 관심사였고, 간호사의 실질적인 환자안전관리활동의 내용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어 안전한 환경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차이에서는 연령은 41세 이상에서, 결혼상태는 기혼에서, 근무형태는 통상근무에서, 임상 총 경력은 10년 이상에서, 환자안전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환자안전관리활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Choi와 Lee, Lee와 Lee[18],

Kim과 Kim[20] 및 Gong과 Son[16]의 연구,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ang, Choi과 Kim[45]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과 근무경력이 높으면 폭넓은 임상경험을 하게 되고 더불어 환자안전 관련 지각이 풍부해지면서 업무가 능숙해지면서 책임감이 높아져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간호사의 지각이 높게 나타났고[16], 결혼을 통해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업무로 이어지면서 환자안전관리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통상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이 밤 근무를 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집중력이 향상되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간호사의 지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지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분석을 통해 가정과 일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직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다양한 임상경험을 통해 업무관련 지식을 축적하고 병원에 적용하며, 이를 통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간호사의 지각을 높이고, 임상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조직몰입과 환자안전관리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환자안전관리활동은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몰입 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관리활동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9]의 연구, 상급종합병원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와 Gang[43]의 연구,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wang과 Lee[26]의 연구에서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조직몰입과 환자안전관리활동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는데,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ang, Choi과 Kim[45]의 연구,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Gong과 Son[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더불어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몰입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ang, Choi과 Kim[45]의 연구,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wang과 Lee[2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안전문화인식을 높여 환자안전문화를 개선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만족도를 향상시켜 조직몰입을 높이는 것이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지각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요인으로 환자안전문화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직몰입, 환자안전교육 경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3.3%였다.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환자안전문화인식, 조직몰입과 환자안전교육 경험의 변수를 통합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와 비교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각각의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환자안전문화인식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요인으로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Nam과 Lim[46]의 연구 및 Hwang과 Lee[26]의 연구에서 환자안전문화인식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안전관리활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및 각 부서차원에서 환자안전문화인식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에서는 정기적인 부서별 환자안전캠페인 및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조직몰입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논의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Gong과 Son[16]의 연구에서 조직몰입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제시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환자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환자실이 없는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wang과 Lee[26]의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는 특성이 다르고, 비교적 규모가 작고, 집중화 정도가 낮은 병원일수록 높은 조직몰입을 보여[47] 환자안전관리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과 같은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다양하고 더 많은 환자 및 의료진들과 마주치는 일이 훨씬 많다. 더불어 당직 근무나 3교대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소진 정도가 높고 결정적으로 이직에 대한 기회도 많기 때문에 낮은 조직몰입을 보여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다[48]. 따라서 대상자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정이나 지침을 개정할 때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의

견을 제시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방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사소통 방안을 제도화하며, 새로운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환자안전교육 경험이 환자안전관리활동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등[49]의 연구,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Gong과 Son[16]의 연구,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i 등[18]의 연구에서도 환자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지각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환자안전교육의 경험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환자안전교육 강화가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얼마나 중요한 지표인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환자안전에 대한 내부지침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에 위치한 3개의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안전관리활동 점수는 병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비슷한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와 환자안전을 강조하는 국내외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성을 책임지고 있는 간호사들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몰입의 수준은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사들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몰입의 수준을 높여서 환자안전관리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병원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각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하여 환자안전관리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환자안전관리활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자안전문화인식, 조직몰입, 환자안전교육 경험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후속연구에 비교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몰입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조직몰입,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정도는 각각 평균 3.23점, 3.34점 및 3.99점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관리활동은 연령, 결혼상태, 근무형태, 임상총 경력 및 환자안전교육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환자안전문화인식 또는 조직몰입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영향요인으로 환자안전문화인식, 조직몰입, 환자안전교육 경험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환자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규간호사 시기부터 연계성 있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내용을 보고체계, 안전환경 관리, 리더십, 병원문화개선 및 감성커뮤니케이션 등으로 구성하며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여 대상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환자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개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개 지역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만을 편의표집한 결과이므로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다. 본 연구에서 종합병원 간호사의 조직몰입이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중환자실이 포함되지 않은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병원조직의 크기와 조직의 구성을 고려하여 조직몰입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N. J. Lee & J. H. Kim. (2011).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safety care activity among nurses in small-medium sized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4), 462-473.
- [2] J. Jeong, Y. J. Seo & E. W. Nam. (2006). Factors affecting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t nursing divisions of two university hospit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ospital Management*, 11(1), 91-109.
- [3] M. S. Ock, S. I. Lee, J. H. Kim, J. H. Lee, J. Y. Lee, M. W. Jo, M. S. Lee, S. H. Kim, H. J. Kim & W. S. Son.

- (2015). What should we consider for establishing a national patient safety reporting system?. *Journal of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4(1), 5-7. ISSN 2288-5811.
- [4]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US). AHRQ focus on research: Patient safety (Publication No. 02-M021) [Internet]. Rockville, MD: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2012. [cited August 18, 2003]. Available from: <http://www.ahrq.gov/professionals/quality-patient-safety/index.html>
- [5] Dispute Mediation Medical Team. (2006). A Survey on Medical Disputes Related to Safety Management in Hospitals, Seoul; Korea Consumer Agency.
- [6] V. F. Nieva & J. S. Sorra. (2003). Safety culture assessment a tool for improving patient safety in health care organization. *Quality and Safety in Health care*, 12(2), 17-19.
- [7]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2004). Seven steps to patient safety: an overview guide for NHS staff, London: National Health Service.
- [8] E. K. Kim, M. A. Kang & H. J. Kim. (2007). Experience and perception on patient safety culture of employees in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3), 321-334.
- [9] Y. J. Lee. (2011). *Patient safety culture and management activities perceived by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Daejeon.
- [10] K. J. Kim & E. G. Oh. (2009).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incidence reporting according to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5(4), 581-592.
- [11] Y. L. Son. (2016). The impact of perceived patient safety culture on safety care activities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3), 509-517.
- [12] D. I. Lee. (2012). *Level of patient's care activity and it's related factors of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13] S. R. Liou. (2008). An analysis of the concep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Nursing Forum*, 43(3), 116-125.
- [14] H. S. Lee. (2013).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of related variables on nursing performance of clinical nurse*. Unpublished doctorate thesis, Kosin University, Pusan.
- [15] M. S. Koh. (2003). A study on the clinical nurses'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9(2), 171-181.
- [16] H. H. Gong & Y. J. Son. (2012). Impact of nurse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in tertiary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19(4), 453-462. DOI:10.7739/jkafn.2012.19.4.453
- [17] J. E. Kim, M. A. Kang, K. E. An & Y. H. Sung. (2007). A survey of nurse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related to hospital culture and reports of medical error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3(3), 169-179.
- [18] J. H. Choi, K. M. Lee & M. A. Lee. (2010). Relationship between hospital nurses' perceived patient safety culture and their safety care activit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17(1), 64-72.
- [19] M. R. Kim. (2011). Concept analysis of patient safe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1(1), 1-8. DOI: 10.4040/jkan.2011.41.1.1
- [20] H. Y. Kim & H. S. Kim. (2011). Effects of perceived patient safety culture on safety nursing activities in the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4), 413-422.
- [21] E. J. Song, Y. S. Park, H. S. Ji & H. K. Lee. (2016). Factors affecting on the clinical nurse's safety nursing activ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1), 469-479. DOI: 10.14400/JDC. 016.14.11.469
- [22] Y. S. Seo & E. S. Do. (2015). Influence of safety culture perception, safety control and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s perceived for nurses in nursing hom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9), 303-311. DOI: 10.14400/JDC.2015.13.9.303
- [23] H. M. Jang, J. Y. Park, Y. J. Choi, S. W. Park & H. N. Lim. (2016). Effect of general hospital nurse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burnout on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2(3), 239-250. DOI: 10.11111/ jkana.2016.22.3.239
- [24] J. H. Jang & S. H. Shin. (2013). Effects of psychiatric nurses' perception of the healthcare accreditation system and safety climate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5(4), 375-385. DOI: 10.12934/jkpmhn. 2016.25.4.375
- [25] M. J. Kang & K. H. Chung. (2017). Perception of healthcare accreditation system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nd nursing performance of regional public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3(4),

- 416-426. DOI: 10.11111/jkana.2017.23.4.416
- [26] H. J. Hwang & Y. M. Lee (2017). Effects of professional autonomy,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erceived patient safety culture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of nurses in medium and small-sized hospitals.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10(1), 63-74.
- [27]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Publication(AHRQ). (2004). NO. 01- 0041. Hospital survey on patient culture. <http://www.ahrq.gov/qual/hospculture/postcult.dpf>.
- [28] R. T. Mowday, R. M. Steers & L. W. Porter. (1979). The measuremen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224-247.
- [29] O. H. Kim. (199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autonomy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of clinical nurses. *Cheongam College Academic Journals*, 21(1), 31-64.
- [30] K. O. Lee. (2009). *The study on nurse manager leadership and patient safety-related nursing activ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31] S. W. Choi & M. C. Jeon. (2018). Awareness about convergent patient safety culture of health professional working in tertiary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103-109. DOI: 10.15207/JKCS.2018.9.1.103
- [32] S. D. Cho, S. E. Heo & D. H. Moon. (2016). A convergence study on the hospital nurse'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safety nursing activ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1), 125-136. DOI: 10.15207/JKCS.2016.7.1.125
- [33] H. Y. Kim & E. S. Lee. (2013). Effects of perceived patient safety culture on safety care activities among nurses in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9(1), 46-54.
- [34] Y. Kim, E. S. Lee & E. Y. Choi. (2013).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of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ospital Management*, 18(3), 27-41.
- [35] B. H. Lee & S. G. Yi. (2017).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and social support on the organizational immersion of small and medium cosmetic brand shop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3), 117-125. DOI: 10.22156/CS4SMB.2017.7.3.117
- [36] S. Moon & J. A. Lee. (2017). Correlates of patient safety performance among nurses from hospitals with less than 200 bed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9(4), 393-405.
- [37] S. Y. Lee, M. H. Lee, H. K. Kim, O. L. Park & B. J. Sung. (2015). Effects of head nurses' servant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clinical nurse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5), 552-560.
- [38] Y. M. Lee. (2011).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its related factor among medium hospitals of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11), 4764-4769. DOI: 10.5762/KAIS.2011.12.11.4764
- [39] K. J. Lee. (2012). *The relationship among gender role conflic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male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40] M. O. Oh, M. H. Sung & Y. W. Kim. (2011). Job stress, fatigue, job satisfaction and commitment to organization in emergency department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7(2), 215-227.
- [41] K. H. Kang, Y. H. Han & S. J. Kang. (2012).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8(1), 13-22.
- [42] J. B. Lee & O. S. Cho. (2018).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fusion-integrated generation of youths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work environ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1), 281-290. DOI: 10.22156/CS4 SMB.2018.8.1.281
- [43] S. S. Cho & M. H. Gang. (2013).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safety care activity of entry-level nurses. *Korean Academic Society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2(1), 22-34.
- [44]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4).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http://www.hira.or.kr/dummy.do.pgnmid=HIRAC920013000000>
- [45] H. Kang, S. K. Choi & I. S. Kim. (2016). Factors influencing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in operating room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9), 329-339.
- [46] M. H. Nam & J. H. Lim. (2013). The influences of the awareness of patient safety culture on safety care activities among nurse in small-medium sized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1), 349-359.
- [47] H. W. Kim.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convalescent hospital nurses' role ambiguity and role conflict : The*

Mediating job stress and regulation effect of just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48] D. R. Lee, C. J. Kim, D. R. Lee & C. J. Kim.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moderating effect of employment types. *Korean Academy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3(1).
- [49] K. H. Lee, Y. S. Lee, H. K. Park, J. O. Rhu & I. S. Byun. (2011). The influences of the awareness of patient safety culture on safety care activities among operating room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7(2), 204-214.

임 선 애(Im, Sun Ae)

[정회원]



- 2018년 2월 : 군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1987년 4월 ~ 현재 : 군산의료원 간호사
- 관심분야 : 성인간호, 중환자간호, 만성질환자 간호, 감염관리, 환자안전

▪ E-Mail : say7391@hanmail.net

박 민 정(Park, Min Jeong)

[정회원]



- 1999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08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0년 6월 ~ 2012년 8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2012년 9월 ~ 현재 : 국립군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보건간호학

▪ E-Mail : itsmedal@naver.com